메트로 2015년 4월 [illegible]일 목요일 제3193호 www.metroseoul.co.kr

나도 군대 가고 싶어요

입대 희망자 1~2년 허송세월 일쑤… 병무행정 구멍 p/4

"입대 가능시기, 탈락 이유도 모른채 무작정 대기"

"성매매할 자유를 달라" 헌재, 오늘 첫 공개 변론

p/23

"신문을 갖고 튀어라"

p/23

유승민의 '제3의 길'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은 재벌 편이 아니다 · 서민 편에 서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제3의 길'을 선언했다. 재벌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했다. 이를 위해 진영을 넘는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국회 둘째 날인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경제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성장을 못하면 더 심각한 양극화와 국가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정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두 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증세, 중(中)부담 중(中)복지의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유 원내대표는 다음해 5월까지 새누리당을 이끈다. 새누리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 '제3의 길'의 원조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1994년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영국'을 외치며 노동당수에 올라 개혁을 추진, 3년 뒤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당장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개혁작업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함 호소하는 성완종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 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옥 인준 두고 '여야 대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 가운데 청문회 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박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며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인준안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72일만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인준안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마쳤으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주변에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원기자

안전대책 꼭 집어 책임묻겠다는 이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는 8일 송파구 방이동의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4월 말~5월 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안전회의를 열어 부처별 소관 안전 사항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나온 것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며 "각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 소관을) 따지면 곤란하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를 조정하겠다"며 강조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미군 사령관 "北 핵탑재 이동식 ICBM 배치"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밝혔다.

고트니 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과정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트니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며 "아직 그들이 KN-08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발사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트니 사령관은 이는 "정보기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KN-08의 제원과 관련해 같은 날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은 '38노스'에 발표한 새 연구보고서에서 KN-08 미사일이 3단 추진체라고 추정했다. 실링 연구원에 따르면 KN-08 추진체 1단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쓰인 엔진 4개로 구성돼 있다. 2단 추진체의 동력은 구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에 쓰인 엔진 1개, 3단 추진체의 엔진으로는 R-27 미사일의 궤도수정용 보조엔진 2대가 쓰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N-08 미사일의 전체 길이는 약 17m, 가장 아랫부분의 지름은 1.9m다.

북한이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열병식에서 각각 KN-08을 선보이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발사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최대 사거리나 탑재 능력 등에 대해서는 추정만 해왔다. KN-08의 사거리에 대해서도 짧게는 6000㎞, 길게는 1만2000㎞까지로 추정된다. 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는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초기 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20~30발의 KN-08 미사일과 1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최대 사거리를 1만5000㎞까지 늘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KN-08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민간, 군, 정부당국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위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6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N-08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들(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지난달 20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혜인기자 yosal@

'마이동풍' 국방부, 입대전쟁 나몰라라

치열한 입대경쟁에 '입영 장수생' 속출
국방부 "본인이 다른 방법 찾아라"

입영 추첨에서 계속 탈락하는 '입영 장수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방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 모집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소폭 변경됐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은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되니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입영일자 선호기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탈락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지망이라고 해서 입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계속해서 추첨에 떨어지는 입영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가능한 1지망자를 우선으로 선발한 후 2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입영일자는 어번에 도입한 전산 추첨제로 결정된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 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질문에 "1지망자 우선 선발 후 2지망자에게 차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들이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입영 장수생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공평성 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입영원제도와 다른 다양한 군입대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것을 위해 병무청에서 대학에 찾아가 설명과 홍보를 형평성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석 발생 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입영원 제도는 신청대상이 입영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군대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공석 역시 입영 장수생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 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 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뻔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중에서 보내 온다"며 "임시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yoona@metroseoul.co.kr

본회의 방청하는 세월호 유가족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앞서으로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수습비용 총 5500억원"

세월호 사고 전체 수습비용이 총 55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 중 세월호 인양에 12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8일 해수부 김영수 대변인은 "선체 인양 비용은 일단 인양 조건이 중간 정도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500억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최종 수습 때까지 국비 5239억원, 지방비 309억원 등 모두 554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체 비용 5548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이 집행됐으며, 앞으로 369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추가로 사용할 3694억원은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1400억원, 선체 인양 1200억원, 그밖의 사고 수습 비용 1100억원 등이다. 사고 수습 비용은 수색·구조 비용과 화물 배상, 기름 오염 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 보상, 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분향소 운영 등에 사용된다.

이날 해수부의 갑작스런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발표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비용 공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10일엔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서이기자 nc1san217@

삼성, 장애인에게 이럴 수 있나

겉으로는 '지원' 뒤에서는 '차별' 앞장

장애인 지원 활동을 해 온 삼성이 내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었다.

8일 심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인권위원회의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 성, 질병, 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56건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다. 2위인 현대자동차는 36건, 3위인 NH농협은 32건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삼성의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주된 인권 침해는 장애인 차별이었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 총 354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장애인 인권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까지 공식 후원 연장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장애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장애인 선수도 일반 선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진 올림픽 출전선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다. 삼성SDI는 2004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지 못하는 서광학교 학생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졸업앨범 제작을 진행해왔다. 삼성화재는 1995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해 왔다. 삼성에버랜드는 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했고, 삼성토탈은 서산시에 장애인용 리프트 차량을 지원했다. 삼성 협력사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는 1사1장애인 직무 고용 운동을 전개하는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삼성의 장애를 비롯한 인권 의식은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삼성전자는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대기업 13곳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병철기자 bhsong@

안희정 "냉전적 복지논쟁 중단 촉구" 안희정 충남지사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제막식에서 냉전적 복지논쟁의 종언 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우 감독의 '외아들'(1963년) /한국영상자료원

희귀 한국영화 만나보세요

노필 감독의 '안창남 비행사'(1949년), 홍은원 감독의 '여판사'(1962년), 정진우 감독의 '외아들'(1963년), 최하원 감독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8년).

한국영화사의 거장감독들의 데뷔작이다. 이 작품들을 포함해 94편의 희귀 영화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만희, 임권택, 김수용 등 다른 당대 최고의 감독 작품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영상자료원(KOFA)은 7일 94편의 미보유 한국영화 필름들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종로에서 순회영사 사업을 했던 한국영화공사 한규호 대표가 기증한 작품들이다. 한 대표는 개인 소유 창고에 필름들을 보관해 왔다.

영상자료원은 이번에 입수한 작품 중 일부를 곧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만희 감독의 '잊을 수 없는 연인'이 첫 공개작이다. 이 감독 타계 40주기를 기념한 '이만희 감독 전작전'에서 공개된다. 이 행사는 오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시네마테크 KOFA에서 열린다.

이후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한국영상자료원 발굴·복원전'에서 정진우, 임권택, 김수용, 최하원 감독의 작품이 상영된다.

Returen of Rare Korean Films

"An Chang Nam Pilot" by Director Nopil (1949), "A Female Judge" by Director Hong Eun Won (1962), "The Only Son" by Director Jung Jin Woo (1963), "Standing on the slope of Trees" by Director Choi Ha Won (1968).

These are the debut films of the greatest directors in Korean movie industry. Along with these films, 94 rare films were released. Also, there are films including the works of Lee Man Hee, Lim Kwon Taek, Kim Su Yong and other Film masters of different generations.

Korea Film Archive (KOFA) has stated on the 7th of this month that they have restored 94 non-possessed Korean movie films. There are the films that are contributed by Han Gyu Ho, the representative of Korea Film Company. He has preserved these films in his personal storage room.

Korea Film Archive will reveal some of these acquired films to the public in the near future. The first film to be released is "Unforgettable Lovers" by Director Lee Man Hee. This film will be shown at the 40th year Commemoration Day of Director Lee. This event will be held on the 23rd of this month at the Cinema Tech KOFA Mapo-gu, Seoul.

On June 12th to July 5th, the excavation by Korea Film Archive entitled "Recovery Exhibition" will be held and films by Director Jung Jin Woo, Lim Gwon Taek, Kim Su Yong, Choi Ha Won will be shown. /메트로(미디어)한 영어화화

Chris Kim 김모원 강사

어처구니없는 휴관 조치에 서울연극제 대중 '관심'

뉴스룸에서
김 만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극장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지난 7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밝힌 말이다. 무대 심부 모터 파손 등 극장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예술위 측은 "조명봉은 작품에 따라 조명기 50대 내외가 부착되고 필요한 경우 무대장치나 출연진들을 매달기도 하는 장치다. 조명봉의 최대 하중은 1t에 달한다. 이것을 작동시키는 모터가 파손될 경우 조명봉 등이 무대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휴관 결정은 안전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전극장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과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예술위 측의 갑작스러운 휴관 조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시기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로 제36회 서울연극제가 열리는 기간이다. 지난 4일 개막한 서울연극제는 극단 판장의 '6.29가 보낸 예고 부고장'(23~29일)과 극단76의 '물의 노래'(5월 2~9일)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하기로 했었다.

'6.29가 보낸 예고 부고장'은 학생운동이 한창이었던 대학의 86, 87 학번들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작품이다. 28년이 지났지만 경찰에 끌려갔던 한 친구는 고문 후유증에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며 부고장을 보낸다.

'물의 노래'는 관동대지진을 소재로 하고 있다. 우물이 주요 모티브다. 하지만 제목이 주는 어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내용이나 제목이 정치적으로 껄끄러운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말 서울연극제를 주최하는 서울연극협회는 2015년 정기 대관공모 선정에서 36년만에 탈락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서울연극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예술위를 고발까지 했다.

사태가 확대되자 예술위는 서울연극협회와 협의해 대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극협회도 고소 취하 공문을 보냈고 대관 계약과 관련해서도 구두상으로 주고 받았다. 그런데 서울연극제가 시작되자 갑자기 예술위는 아르코예술극장을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연극계는 예술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단체를 길들이고 단압하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극위회는 연극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객과 공연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극위회 관계자는 "이미 예매 관객과 공연단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예술위가 다시 심사숙고해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다른 공연장을 섭외해서라도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단체를 길들이고, 이런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꺼려서 이번 휴관 조치를 내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느낌이다. 대중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있었던 서울연극제가 이번 사태로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일호의 호소, 헛된 외침되나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부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13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올 한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건설업계에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발표 3개월이 다 되도록 기대했던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신임 장관이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이유로 '등장'은 호소한다고 참여를 결정하는 건설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건설사에게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해지 않은 채 공적 개념의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은행는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 쏟아질 정도로 분양시장이 호황이다. 분양도 바쁜 건설사들이 임대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먹거리로 뉴스테이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사장의 믿음이 적다. 뉴스테이 사업은 각종 하위 법률에서 게재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주겠다는 게 골자인데 당장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리매김 수 있다.

무엇보다 다음 정부에서도 뉴스테이 정책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 건설업계는 정부만 믿고 4대강 사업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했다 보사구병 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뉴스테이 사업도 4대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유 장관의 진정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행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단순한 호소는 건설사들에는 압박으로 느껴지는 반면, 국민들에겐 건설사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인사

◇코아시스 △승진 ▷사업본부 경비관리담 이사 이규성 ▷기술개발본부 품질개발담 부장 이원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섬유세라믹과장 김화경 ▷통상협력총괄과장 안병화

◇충북 진천군 △4급 승진 ▷행정과 신미수 △5급 승진 ▷기획감사실 송상호 ▷주민지원과 김상진 ▷문예관 조의형 ▷투자과 박순순 ▷주민복지과 김달청

부고

▲반가숙씨 별세, 김학식(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씨 모친상 = 7일 오후 3시 3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 043-234-2499

▲조덕흰(제주컨벤션뷰로 현미관)씨 별세, 임금관씨 남편상, 군범 정범씨 부친상 = 8일 오전 4시 S-중앙병원, 발인 12일 ☎ 064-730-1903

▲배상돈씨 별세, 문현(외환은행 신탁본부 전무)·승원(한경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교수)·인형(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장)씨 부친상 = 8일 새벽 4시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 02-721-8031

▲한귀란씨 별세, 박행숙·희숙·금숙·지혜씨 모친상, 예 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허석원(돈업기업 대표)·박시범(드림에이엔디 대표)·이순환(미래가정의학과 원장)씨 빙모상 = 7일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9일 ☎ 02-3410-6914

▲황원오(세무법인 장신 대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씨 별세, 곽현숙씨 남편상, 범재유(범재동치과의원 원장)·희정·재순(LG전자 이사)씨 부친상 = 8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0일 통산공원묘 ☎ 02-3410-6903

▲김성자씨 별세, 이상일(전 현대자동차 장부)·심현(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상옥·경옥·신옥씨 모친상, 박영일(사업)·김의환(사업)씨 장모상 = 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 02-2258-5940

▲조금순씨 별세, 박춘화(작아두자준관 건설회장)씨 모친상 = 7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9일 ☎ 051-256-7011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나선다

금감원, 특별대책단 구성 금융사기 등 전방위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하다"면서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집중단속에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불법 행위가 여전해 민생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규정한 다섯가지 금융악은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싱사기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다. 실제로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게다가 금감원 과장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시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지난해 3만3410건으로 증가세다. 금융사기 과정에 등장하는 대포통장 건수도 피싱사기 기준으로 각각 3만3496건, 3만8437건, 4만4705건으로 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역시 급증세다. 같은 기간에 적발된 규모가 4533억원, 5190억원, 5997억원으로 급증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피해구제 강화 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과 부문별 대응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5대 금융악 신문고'를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전화 1332)에 추가해 가동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금융악 종합페이지가 신설된다.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 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 @metroseoul.co.kr

KB금융 피겨 유망주 장학금 전달식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KB금융그룹은 8일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KB금융 피겨 유망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이기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김연아 선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피겨선수들에게 훈련 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피겨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은 남녀 싱글 10명(남 2, 여 8)의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KB금융그룹 제공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나온다

금융위, 카드사 부수업무 등 규제 완화

이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개혁을 위해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느냐고 건의하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전달했다.

이에따라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 등을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또 P2P송금과 에스크로, 마케팅 Tax refund 등의 사업 추진도 허용키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단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에는 부수업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허용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발급 신청 24시간 후 발급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출은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기존 의견수렴과는 반영속도와 결과가 다를 것"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illegible]

금융위, IFRS4 도입 2년 연기할까

한스 IASB 위원장 발언에도 "현재까진 논의 없다"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이 오는 2018년 도입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이하 IFRS4)를 현행보다 2년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해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지 궁금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후거보스트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주최한 회계학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후거보스트 위원장이 IFRS4 도입 연기 발언을 한 이유는 시험 기준서 마련이 지체된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기준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마련하지 못해 이르면 2016년 1분기 내 최종 기준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IFRS4 도입은 최종 기준서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 첫 회계연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기준서가 2016년 상반기에 마련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0년에야 IFRS4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까지 IFRS4 도입 연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IFRS4 연착륙방안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IFRS4 도입을 2018년으로 보고 IFRS4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거보스트 위원장의 발언은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내부에서 도입 연기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없고 당초 계획에 따라 IFRS4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무리하게 IFRS4 도입 연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2018년에 도입하기에는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 현재 기준으로 IFRS4 도입되면 생보사는 당장 2018년까지 35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급증해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58조원에서 23조원 규모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출도 3분의 1로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최종 기준서 마련 지연으로 IFRS4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이 미뤄진 만큼 업계와 당국이 충분하게 IFRS4 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스 위원장이 도입 연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IASB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혁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illegible]

2월 체크카드 승인액 '역대 최고'

"민간소비 개선 아직"

지난 2월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이 20%대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소득공제율과 다양한 상품 개발에 기인한 결과다. 단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며 그쳤다.

8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카드 승인금액은 45조66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조4800억원보다 10.1% 늘어난 규모로 201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설 연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1~2월을 통합(94조800억원)해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가량만 증가했다.

결국지난해증가율(5.8%)보다 불과 0.5%포인트만 오른 셈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과 부동산·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금리인하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소비활성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소폭(0.5%p) 상승했다"며 "이는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시차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산가격의 상승이 내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민간 소비의 동향을 반영하는 1~2월 소매판매액지수 평균지도 111.75로 전년 동기(112.4)보다 0.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크카드와 소액결제의 비중은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

올해 1~2월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19억270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3600만건 더 늘었다. 하지만 승인금액의 증가율(6.3%)보다 승인건수 증가율(14.1%)이 7.8% 포인트 높아 카드의 소액결제화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높은 소득공제율과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이 개발되면서 2월 승인금액 비중이 20.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승인건수는 1~2월 신용카드가 12억1900만건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고,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7억400만건으로 22.6% 커졌다.

소액결제 확대로 카드종류와 상관없이 승인건수 증가율이 승인금액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실제 이 기간 전체카드 평균결제금액도 4만8817원으로 4만원대를 기록했다.

카드 종류별평균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8%, 체크카드가 6.9% 하락해 카드결제의 소액화 국면을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수입자의관매할과 운전자층의 확대로 자동차판매업종 가운데서도 수입자동차의 카드 승인액이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저유가와 환화 강세 등의 가격인하 요인 영향으로 항공사(-4.2%)와 면세점(-7.4%)의 카드 승인금액은 모두 내려갔다.

유통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올랐고, 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업종의 승인액의 경우 가장 큰 폭(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소득공제 확산으로 편의점의 카드승인금액은 전년대비 30.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박상길기자 a_ssg1203@

김정태 '광복 70주년 상품' 대박

'대한민국만세 정기예·적금' 9일만에 10만계좌 돌파
하나카드, '대한민국만세 카드·TV광고 등 지원 러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온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그룹과 은행, 카드사의 전방위적인 후속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하나금융은 이날 나라사랑의 참뜻과 광복 70주년의 벅찬 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TV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는 최근 출시된 '대한민국만세 예·적금 상품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외환은행은 지난달 23일 나라사랑의 의미를 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중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만세 예·적금'을 내놨다.

예·적금은 김정태 회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개발부터 출시, 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진행한 작품이다.

이는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 은행이 계좌당 815원을 출연,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해외 독립유적지 보존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항거 정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행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 301명을 추첨해 안중근 의사 의거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영웅'에 초대키로 했다.

또 가입고객에게 중국내 대표적 항일 유적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815명에게는 태극기를 증정하는 등 대중적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같은 시임에 힘입어 '대한민국만세 정기예·적금'은 출시 9일만에 10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한민국만세 정기예·적금'은 일반적인 상품 가입좌수 증가속도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0만좌 달성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광고캠페인과 상품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독립에 대한 자존심을 잊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광고모델도 국민 삼둥이(송대한·송민국·송만세)가 맡아 '광복 70주년'이라는 주제를 좀 더 친숙하게 다가 설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계열사인 하나카드도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출시하며 후속 지원에 나섰다.

카드 플레이트는 태극기 디자인으로 꾸려졌다. 하나카드는 또 광복절(8·15)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8월까지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사용한 회원 815명을 추첨해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백두산과 상해 등으로 여행을 가는 고객에게 최고 10만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광복절(8·15)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에디션 카드인 만큼 카드 고객에게는 최고 8.15%의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a_ssg1203@metroseoul.co.kr

에너지기술 R&D 중기 돕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 개발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사진 오른쪽)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원장과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기업은행 'IBK소상공인희망대출' 판매

IBK소상공인희망대출 구조.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8일 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는 'IBK소상공인희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BC카드사 포함 5개사 이상 카드사와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다. 기업은행은 대상 가맹에 총 2000억 한도로 대출금을 지원한다.

목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은 카드 매출대금 중 BC카드를 통해 들어온 매출대금으로 매일 자동 상환되도록 했다. 대출금 상환비율은 10~100% 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비율을 20%로 지정하면 BC카드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대금의 20%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또 가입한 소상공인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 상환비율에 따라 최대 0.7%p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보배기자

보험개발원, 몽골에 보험산업 선진화 지원

보험전문기관 설립 추진

보험개발원은 몽골에 한국형 보험전문기관을 비롯한 현지 보험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신흥시장에 대한 보험정보 인프라 구축과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몽골 금융위원회(FRC)는 지난해 자국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부터 몽골 보험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6월 말 몽골 현지를 방문해 몽골 금융위원회와 보험 분야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구체적으로 몽골 보험전문기관 설립방안을 제안하고 보험산업에 필요한 요율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리 분야의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필수조건인 보험전문기관 설립의 모델은 보험개발원의 기능을 토대로 한 '한국형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 신흥시장에 한국형 보험모델을 전수해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형 보험시스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국내 보험사의 몽골 진출에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

증권사 수익성, 올해 큰 폭 개선 기대

순이익 전망치 전년比 38% 증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 수익성이 올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시장에서 일평균거래대금은 올해 3월 8조1000억원에 육박해 전월대비 7.2% 증가했다.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분기 보다 16% 증가한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역대 최저치 수준의 기준금리에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쏠리면서 증권업 활황을 견인한데다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증권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시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13년 0.3%, 2014년 4.1%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서 올해 6.0%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자금유입에 따른 거래대금 증대, WM(자산관리) 부문 개선, 채권운용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나대투증권도 "증권사들이 1%대 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지속해온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통한 수익 창출 노력이 올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증권사 순이익 전망치도 전년대비 38% 증가하며 기존 추정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NH투자증권의 올해 예상 순이익을 2370억원으로 추정치인 1890억원에서 25.4%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제시했다.

삼성증권의 순이익 전망치는 2180억원으로 16% 상승했고, KDB대우증권(2280억원, 18.1%), 미래에셋증권(1670억원, 12.1%), 키움증권(1070억원, 2.5%), 현대증권(720억원, 5.9%) 등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합병 전 희망퇴직과 영업망 축소를 통해 비용효율성을 제고한데다 높은 배당성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발생, 거래대금 증대가 NH투자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개인투자자 유입 ▲2016년 노입되는 한국형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차인환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의 '직접구매' 열풍이 확대되면서 향후 개인투자자 등의 유입으로 해외주식투자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써 5년 후 거래대금은 2014년 대비 9.8배 성장하고 증권업종 ROE는 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SA도 증권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약 107조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그 중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비중은 각각 70.54%, 21.74%, 7.72%다. 아직 2014년 말 퇴직연금 가입자가 총 상용근로자 수 대비 51.6%에 그치는데다 오는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이 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 연구원은 이에 대해 "영국은 2010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도록 연 적립금 한도를 매년 증액해 왔고, 적립금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등 ISA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증시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저유가 수혜주 조정 때마다 사라"

당분간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유가 수혜주 비중을 늘리는 투자전략을 추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중동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오르고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란 핵협상 타결과 미국의 원유 수출 가능성, 자동차 연비 개선 등 하락 요인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는 항공과 호텔·레저 등 여행 관련주를 꼽았다.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올랐으나 유가가 지금보다 50% 가량 높던 지난 2007년 주가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하나투어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처럼 다른 여행주들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줄어 장거리 여행이 늘어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연료비 절감에 따른 실소득 증가로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 관련주도 주목해야 한다"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싼 의류나 화장품 등의 품목 소비를 늘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의 주력 등 고비용 제품의 소비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며 "소재업종인 석유화학 관련주 중에선 롯데케미칼 등 종목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

국내 주식형펀드 나흘째 순유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째 자금이 빠져나갔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071억원이 순유출됐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이자 펀드 환매에 나선 투자자들이 많을 엿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305억원의 자금이 들어와 이틀째 자금 순유입을 보였다.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2조1666억원이 순유입됐다. MMF에는 최근 나흘간 9조3915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MMF 설정액은 110조8759억원, 순자산 총액은 111조962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현정기자

코스피 2060선 고지 눈 앞 코스피가 8일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2060선 고지에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12.23포인트(0.60%) 오른 2059.26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올 1분기 ELS 발행금액, 전년대비 75% ↑

올해 주식연계증권(ELS) 발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2015년도 1분기 ELS 발행금액이 전년동기대비 74.4% 증가해 24조 103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발행이 14조6291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60.7%를, 사모발행은 9조4748억원으로 39.3%를 차지했다.

ELS의 발행 증가는 사상 최저수준인 1%대의 기준금리와 연초 이후 국내 증시의 상승흐름이 맞물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ELS가 적정한 투자대안으로 인식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ELS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 허용된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로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자산은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는 주가지수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연말 퇴직연금의 일시적인 ELS 만기 재투자분을 감안한다면 2015년 1분기에 24조원 이상의 ELS 발행금액은 금리 인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일평균 발행금액도 4774억원으로 금리 인하 전(3754억원)보다 약 2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bobae@

삼성물산, 매출은 '뚝' 김신 대표 연봉은 '쑥'

영업익 26억 감소에도 성과급은 17억7500만원 "작년 실적으로 지급" 해명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매출액 급락에도 김신 삼성물산 대표이사(사장·사진)의 성과급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작년 연봉으로 24억4200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성과급은 17억7500만원이었다.

삼성물산은 성과급과 관련 성·부석 연유에 급여의 100%지급, 부서별 목표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미사손익 초과시 성과 지급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작년 급여 6억6100만원과 함께 상여금으로 17억7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에 받은 성과급 2억5500만원에 비해 501.7% 오른 수치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저조했다.

김 대표의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2014년 삼성물산의 매출액은 13조5720억원으로 전년(2013년)대비 9.5% 감소했다. 같은 해 영업이익도 831억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이 줄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13년 성과급으로 2억9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때 기준이 되는 2013년 실적도 저조했나. 2013년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1조3906억원 감소한 14조7921억원이었다.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뒷걸음질 쳤음에도 김 대표의 연봉은 고공상승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삼성물산 연봉체정과 관련 회사내 건설부문과 상사부문이 구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삼성물산 내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14조8735억원이었다. 이는 상사의 13조5720억원보다 1조300억원가량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건설부문의 영업이익도 5693억원이었다. 상사부문은 831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체 영업이익의 비중은 건설 부문이 87.3%를 차지했으며 상사부문은 12.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상사부문 관계자는 "김 대표의 작년 연봉은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라며 "성과급 지급은 2014년 실적을 바탕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준기자 sbj@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티오나인에서 애벌빨래와 모든 세탁과정을 한 곳에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삼성 액티브워시'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

삼성 '액티브워시' 인기몰이… 체험단 경쟁률 230 : 1

삼성전자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티오나인에서 애벌빨래와 본 빨래를 한 번에 하는 신개념 세탁기 '액티브워시' 체험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소비자 체험단원 15명을 모집하는 데 응모자 3400여 명이 몰려 2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체험단원은 한 달간 액티브워시를 사용해 보고 제품 기능과 활용법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체험단에 참여한 한 주부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 소매나 옷깃 부분은 미리 애벌빨래를 해두는 편인데 액티브워시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애벌빨래부터 탈수까지 할 수 있었다"며 "작은 부분까지 소비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착한 세탁기"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TV 고치러 역·공항 출동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공시설 찾아가는 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역사내에 설치된 삼성전자 TV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오는 17일까지 본사 직영센터 3곳의 엔지니어 80여 명을 출동시켜 전국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공공장소 72곳의 TV 화질 등을 점검하는 '공공시설 찾아가는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서비스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강원 양구, 경남 거제 등 54개 터미널, 서울·부산·광명 포함 등 16개 기차역과 청주국제공항 원주공항에서 진행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 TV 전 제품에 대해 개별 설정 화질 음성 점검, 디지털방송 신호감도 테스트, 배선 정리와 클리닝서비스,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터미널, 기차역 등에 설치된 TV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갤럭시S6, 수리 편의성 3점

아이폰6보다 수리 어려워 사후서비스 정책 초관심

아이픽스잇이 갤럭시S6 엣지 분해 과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국내에 전격 출시하는 갤럭시S6 엣지의 사후서비스(AS)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갤럭시S6 엣지가 아이폰6 플러스 보다 제품 수리가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다.

IT기기 분해전문 사이트 아이픽스잇(iFixit)에 갤럭시S6 엣지의 분해 과정을 담은 이미지와 수리편의성 점수를 공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갤럭시S6 엣지가 아이폰6 플러스보다 수리하기 까다롭다.

아이픽스잇이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6 엣지는 많은 부품들이 모듈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작 갤럭시S5와 달리 마더보드를 교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후면에 채용된 유리들은 강력한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다. 배터리 역시 디스플레이 후면에 매우 타이트하게 붙어있고, 미드 프레임과 마더보드 밑에 묻혀있다.

디스플레이 역시 깨지 않고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픽스잇은 갤럭시S6 엣지의 수리편의성 점수를 10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자가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각 서비스센터에 수리 장비나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AS방식을 리퍼폰 형태로 교체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애플의 경우 1년 무상수리 보상기간 외에 '리퍼폰'이라는 AS정책을 고수했다.

제품고장으로 AS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리퍼폰(재생폰)으로 바꿔주는 것. 문제는 리퍼폰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과 비슷하게 비싸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6일까지 갤럭시S6 엣지의 AS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ew@

LG전자, 휘센 벽걸이 프리미엄 시장 공략

6종 출시… 알러지제거 기능도

LG전자가 2015년형 휘센 벽걸이 에어컨 6종을 출시했다. LG전자 모델이 7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알러지 제거 기능을 갖춘 에어컨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9일 2015년형 휘센 벽걸이 에어컨 6종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제품 대비 넘기토출구를 20% 넓혀 넘기 손실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면적 29.3㎡ 기준으로 냉방 속도는 25%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아이스 쿨파워' 기능을 적용해 일반 냉방 모드 대비 4도 더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 실내 온도를 신속하게 낮춰준다.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장착해 일반 컴프레서 적용 모델의 63%의 전력을 사용해도 동일한 냉방 성능을 보여준다.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이다.

이 제품은 영국 알러지 협회 인증도 받았다. 탑재된 3MTM 알러지 필터가 공기중에 떠다니는 알러지 원인 물질인 곰팡이, 진드기, 각종 세균을 약 95%까지 제거한다.

디자인으로 보면 기존 제품보다 슬림해졌으며 발광다이오드(LED) 방식의 히든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원 RAC사업부장 상무는 "뛰어난 냉방 성능에 알러지 제거 기능,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휘센 벽걸이 에어컨으로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벽걸이 에어컨 6종의 출하가는 95만~136만원이다. /김은경기자 eun1?@

현대제철, 매출 20조 '공룡철강사' 탈바꿈

현대하이스코 흡수합병 결의 자동차 강판 기술 강화 탄력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를 흡수합병해 매출 20조원 규모의 종합 일관제철소로 거듭나게 됐다.

현대제철은 8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하이스코 합병안을 의결했다.

사측은 5월 28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결기준 현대제철은 매출 16조7623억원, 영업이익 1조4911억원, 당기순이익 7622억원을 올렸다.

자산규모는 자본 13조8147억원, 부채 15조1190억원 등 28조9338억원이다.

현대하이스코는 매출 4조2143억원, 영업이익 3515억원, 당기순이익 1648억원을 냈다.

자산규모는 자본 9320억원, 부채 1조6094억원 등 2조5414억원이다.

양사를 합하면 매출 20조9766억원, 영업이익 1조8426억원, 당기순이익 9470억원이 된다.

자산규모는 자본 14조7467억원, 부채 16조7284억원 등 31조4751억원으로 불어난다.

합병은 1 대 0.8577로 현대제철이 신주를 발행해 현대하이스코 주식 1주당 현대제철 주식 0.8577주를 현대하이스코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관, 자동차 경량화 등에 대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한편 해외 SSC(Steel Service Center)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 강판의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자동차 강판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관과 자동차 경량화 부문은 소재의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선제적 강종 개발 등을 통해 합병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주요 사업부문으로 육성시킨다는 전략에서다.

사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자체 더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소재 기술력과 해외 SSC를 보유한 현대하이스코의 가공 기술력이 융합돼 품질과 기술 대응력이 올라갈 것"이라며 "해외 영업망 확충에 따라 통합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기자 somen@metroseoul.co.kr

"친환경차 타고 에코투어하세요"

르노삼성, SM3 전기차 부산 관광지 무료 시승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친환경 전기차 SM3 Z.E.를 타고 부산 갈맷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에코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부산 시민과 여행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M3 Z.E. 전기차를 타고 둘러보는 부산의 주요 관광지는 해운대, 동백섬, 광안리 해수욕장이기대, 태종대 유원지 등이다.

주요거점 별로 자유롭게 승하차 및 이동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접수하며 사전예약은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인 및 참여할 수 있다.

SM3 Z.E.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으며,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를 6배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부산시는 20일까지 소상공인을 포함한 법인대상 전기차 민간보급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SM3 Z.E. 공모자에게 200만원의 특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박상길기자

토요타, 신형 터보엔진 개발… 최대 열효율 36%

'오리스'에 첫 탑재

토요타자동차는 엔진 열효율과 가속의 동력 성능을 양립시킨 1.2L 직분사 터보 엔진 '8 NR-FTS'(사진)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엔진은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과 기존 엔진의 개발에서 연마된 기술에 과급(turbo-charge) 기술을 추가해 고열효율을 실현했다.

마이너 체인지된 '신 오리스'부터 탑재를 시작한다.

신형 엔진은 배기가스 온도를 최적으로 하는 수냉 실린더 헤드 일체형 이그저스트 매니폴드와 싱글 스크롤 터보 차저의 조합에 의해 터보지저가 뛰어난 효율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컴팩트한 수냉식 인터쿨러의 채용에 의해 엔진의 열 부하에 좌우되지 않고 운전 상황에 따른 흡기 냉각 효과를 발휘한다. 엑셀 조작에 대한 순간적인 응답성과 폭넓은 회전역에서의 최대 토크의 발생을 실현했다. 또 실린더 내의 강한 소용돌이(tumble flow, 종회전의 소용돌이)와 토요타의 첨단 직분사 기술 D-4T가 혼합공기를 형성해 고효율의 고속 연소를 실현했다.

나아가 부하에 따라 밸브 개폐 타이밍을 제어하는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 VVT-iW(흡기 측)를 가능하게 한 앳킨슨 사이클 등 연소 개선과 손실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양산형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서는 탑 수준인 최대 열효율 36%를 달성했다.

토요타는 화석연료의 소비 억제를 위해 판매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종래형 엔진차의 연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고열효율의 저연비 엔진군에 동력 성능도 양립시킨 터보 엔진을 추가함으로써 에코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필기자

기아차, 하이브리드차 사면 공기청정기 준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시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고 8일 밝혔다.

'더블 반값' 프로그램은 ▲2.9%의 금리와 차량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값 할부'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정비, 세차, 하이패스 결제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패키지'로 구성됐다.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이 더블 반값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프레스티지 모델, 선수율 20%, 잔가 40% 기준) 일반적인 할부와 비교해 월납입금은 ▲K5 하이브리드 고객은 약 69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K7 하이브리드 고객은 약 87만원에서 약 46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반값 패키지에 해당하는 사용금액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출고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적용, 현대카드 가맹점)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K5 하이브리드 및 K7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공기청정기(20만원 상당)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용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5월 29일까지 차량 계약번호를 입력(기아 레드포인트 5만점 차감, 선착 고객 증정)하면 된다. /이정필기자

현대차그룹 인사
장원신 전무, 부사장 승진

현대자동차그룹은 8일 현대차 해외판매사업부장 장원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해외영업본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해외판매사업부장 자리에는 현대차 유럽법인장인 임병권 전무를 발령하고, 미주실장 김형정 상무를 유럽법인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공장장인 신현종 부사장은 조지아공장 법인장으로, 유럽실장인 손창원 전무는 미국 판매 법인장으로 각각 보직 발령했다. 기아차 미국 생산·판매를 총괄하던 안병모 부회장과 현대차 해외영업본부장 임탁욱 부사장은 고문과 자문으로 각각 위촉됐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고객과 시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신(張元新) 현대자동차 부사장 1958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현대차 수출1실장(이사대우) 현대차 수출지원실장(이사대우) 현대차 스페인법인 법인장(이사/상무) 현대차 터키공장 법인장(전무) 현대차 해외판매사업부장(전무)

◇신현종(申鉉淙) 기아자동차 부사장 프로필 1956년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현대차 인도공장 구매담당(이사대우) 현대차 인도공장 구매담당(이사/상무) 현대차 통합구매사업부장(전무) 기아차 조지아공장장(부사장)

"쉐보레 타고 오토캠핑 떠나자"

한국지엠, 200가족 초청

쉐보레는 캠핑 시즌을 맞아 5월 16일과 17일 '제 8회 쉐보레 레저용 차량(RV) 패밀리 오토캠핑'을 개최한다. 쉐보레 RV 패밀리 오토캠핑은 백사장과 삼림이 어우러진 충남 태안군 몽산포 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되며 총 200 가족이 초청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다음달 3일까지 쉐보레 홈페이지(www.chevrolet.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5월 7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전무는 "쉐보레 RV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토캠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쉐보레 RV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물론 향후 관심 고객들에게도 쉐보레와 더불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캠핑 장비가 없는 가족 중 추첨을 통해 50가족에게는 블랙야크 헤리티지 텐트를 포함한 캠핑 장비가 빌려준다. 일곱 가족에게는 글램핑을 제공해 럭셔리 캠핑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진다. /양소리기자 kitsune@

점유율 하락·단독 영업정지…

'취임 100일' 장동현 SKT 사장, 출발부터 진땀

허위 과장광고로 소송 당해
광고 내려 마케팅 예산 낭비
SKB 통합도 무산 가능성

SK그룹의 두터운 신임 속에 SK텔레콤의 새 수장자리에 오른 장동현 사장(사진)이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젊은피' '전략통'으로 불리며 조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안팎의 평가는 냉랭하다. SK텔레콤의 절대 강자 지위를 상징했던 50% 시장점유율이 13년 만에 저유으로 무너지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사장은 1월 2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후 3개월간 크고 작은 악재로 진땀을 빼야만 했다.

첫 번째 악조는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었다. 취임 직후인 1월 9일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삽입한 내용의 TV광고를 시작했다가 경쟁사로부터 거센 항의와 함께 피소까지 됐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전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은 TV·지면·옥외 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내려 마케팅 광고비만 낭비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지난 1월 일선 대리점·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시장을 과열시킨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단독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SK텔레콤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장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공식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일주일도 안돼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기존 가입자들 다른 통신사에 빼앗기는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월에 번호이동을 통해 고객 2만9387명이 경쟁사로 빠져나갔고 2월에도 3만8394명이 줄었다. 3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4만4324명이 타사로 옮겼다.

지난 10여년간 철옹성처럼 유지돼 온 50% 시장점유율도 무너졌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2835만6564명으로 전월대비 36만5019명(1.27%) 감소하며 시장점유율이 50.01%에서 49.60%로 내려앉았다.

장 사장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의 통합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주가가 계속 추락하면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등이 3월20일 공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4645원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SK브로드밴드 주가는 전날보다 1.84% 떨어진 4525원에 마감됐다.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은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주가는 SK텔레콤과의 주식교환 발표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주주총회 예정일인 5월6일 직전까지 SK브로드밴드 주가가 4645원을 다시 넘어서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기관과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SK브로드밴드는 총 6762억2296만9255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자금 마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정한 것은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시너지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기업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유무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장기적으로는 양사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비교적 신중하고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 사장이 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SK텔레콤은 점유율 하락, 불법보조금 살포, 소송에 따른 광고 피해 등 짧은 시간에 실망스러운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통합작업에 필요한 자금도 SK텔레콤의 가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하기자 hsjyyjh@metroseoul.co.kr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인상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원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해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결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 최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 가량이다.

/정은해기자 hei3100@

SK텔레콤은 안심과 편의 기능을 강화한 신규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2종 'T안심콜' 'T메모링 프리미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음성통화 정보노출 걱정 끝"

SKT, 보안·편의성 강화

SK텔레콤은 안심과 편의 기능을 강화한 신규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2종 'T안심콜' 'T메모링 프리미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T안심콜' 고객은 010번호 노출 없이 주차, 택배, 인터넷 거래 등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050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050번호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와 자동 연결돼 고객은 실제로 사용중인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050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 등 일부 기업이 고객에게 일회성 부가혜택으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T안심콜'은 개인 고객이 직접 안심번호를 관리하고 안심수신, 안심녹취, 간접통화 등 차별화된 특화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SK텔레콤은 통화를 하기 전 미리 설정된 음성메모를 스타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메모 알람 서비스 'T메모링 프리미엄'도 선보인다.

고객들은 'T메모링 프리미엄'을 통해 미리 설정한 가족·지인의 기념일과 경조사는 물론 명절이나 24절기 등 특별한 날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하기자

SKT "갤럭시 S6·엣지 단말기 배달 갑니다"

예약고객에 배송 시작

SK텔레콤은 오는 10일 '갤럭시S6·갤럭시S6 엣지'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 대상 단말기 배송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단말기 배송은 8~9일 양일간 진행되며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들은 10일경에 택배로 수령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와 도서산간 일부 지역은 택배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단말기 개통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진행돼 당일 내 완료될 예정이다.

단말기 수령 고객은 개통을 위해 별도로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갤럭시S6 엣지'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8~9일 양일 간 단말기 배송에 들어간다. SK텔레콤 배송관리 직원들이 서울의 한 물류창고에서 택배 배송을 위해 갤럭시S6 단말기를 포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오프라인 예약 가입은 전국 4000여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오는 9일 24시까지 계속된다.

/이재하기자

고용창출 1위 신세계, 정규직 비율은 '찔끔'

30대그룹 고용증가율 1.3%, 비정규직은 4.1% ↑
신세계, 고용증가율 8.6%, 정규직은 0.9%p 감소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연일 외치고 있음에도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고용 증가율이 1%대에 그쳤다.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위주로 채용되며 고용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고용 증가율은 1.3%대에 그쳤다.

30대 그룹의 평균 '정규직' 고용 증가율은 1.0%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고용 증가율은 정규직 증가율의 4배가 넘는 4.2%에 달했다.

특히 직원 수 증가율 8.6%로 1위를 기록하며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많이 냈다는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도 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신세계그룹 9개 계열사의 지난해 직원 수는 4만877명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지만 정규직 비율은 전년 대비 0.9%p 줄었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정규직 직원수는 약 2.23% 늘었지만 비정규직 증가율은 정규직 증가율의 3배가 넘는 약 7.34%에 달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신(新)인사제도를 도입해 회사가 정규직을 줄이고 있다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용증가율 현황

	직원 증가율	정규직 비율
신세계	+8.6%	-0.9%p
현대자동차	+5.5%	-1.9%p
포스코	+3.0%	-3.6%p
현대중공업	+2.8%	-0.9%p
효성	+0.8%	-0.3%p
미래에셋	+0.7%	-0.7%p
LG	+0.3%	-0.5%p

고용 증가율 5.5%로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를 보함해 포스코(고용증가율 3.0%), 현대중공업(2.8%), 효성(0.8%), 미래에셋(0.7%), LG(0.3%) 등도 직원 수는 증가했지만, 정규직 비율은 줄어든 모습이다.

비정규직을 위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비율은 -1.9%p를 기록했다. 포스코 -3.6%p, 현대중공업 -0.9%p, 효성 -0.3%p, 미래에셋 -0.7%p, LG -0.5%p 등을 기록했다.

/김서현기자 seoulseo@metroseoul.co.kr

갤러리아백화점 식품관인 고메이494에서 8일부터 올해 대전시 산내동에서 출하되는 첫 국내산 햇포도(델라웨어)를 선보였다. 햇포도인 델라웨어 포도는 캠벨포도보다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고 크기가 작아 먹기가 용이하다. /갤러리아 제공

국내 최초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SPC, 농식품부 등과 조경밀 특화단지 구축

제빵용 우리밀 특화재배단지가 국내 처음으로 조성된다.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익산군, 익산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와 함께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구축을 위한 행복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경밀의 품질 제고와 생산 확대와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농가가 힘을 모아 약 147ha 면적에 100여개 농가가 참여하는 조경밀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밀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전용 저장, 건조시설 구축 등 재배단지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우리밀 종자 개발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리밀의 재배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익산군과 우리밀생산자위원회는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들이 매뉴얼을 준수해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사진 왼쪽부터 조용길 익산군우리밀생산자위원장, 오익호 익산군수, 이천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를 SPC그룹 삼립GFS대표이사, 임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SPC그룹 제공

SPC그룹은 생산된 물량을 적극 수매하는 한편 우리밀 제품 개발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250톤의 조경밀을 포함해 총 4000톤의 우리밀을 수매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이를 650톤, 5500톤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밀 제품도 올해 45종에서 2018년에는 60여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제빵 경연대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촉진하고, 해외에 진출한 파리바게뜨 매장을 통해 수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진기자 gree@

홈플러스 생필품 할인, 협력사 부담은?

경품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체질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신선식품 상시할인'에 대한 잡음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홈플러스가 다시 '가공식품 상시 할인'이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추락한 이미지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선식품에 이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생수·우유·빠잡지 등 1950개의 생필품 가격을 특정 기간을 두지 않고 연중 상시적으로 시세보다 10~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의 이익을 내리는 방식으로 연간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이 생필품 가격 상시 할인에 대해 장바구니 물가안정 및 내수촉진에 기여하고 중소 협력회사 수익 증대를 위한 명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협력사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성환 사장, "납품업체 쥐어짜기" 논란 해명
"공정위, 상시 할인·단기 프로모션 오해한 듯"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는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홈플러스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가 협력업계에 마진 축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지 취재 결과 홈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저가 행사가 본사의 자체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4월 2일자)

도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3월에 발표한 500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마진을 낮춘 것"이라며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선식품 이외에 통상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협력사와 마진 축소 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bora@

롯데, 아스타나 그룹과 '경제협력' MOU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7일 소공동 롯데정책본부 24층 회의실에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Astana) 그룹과 상호 경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사장과 눌란 스마굴로프 아스타나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판매사이자, 대형 쇼핑몰인 메가(Mega)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종합 기업이다.

아스타나는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를 대비하여 테마파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롯데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

스타나 그룹의 테마파크 시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스타나는 롯데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사장은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문화컨텐츠인 테마파크와 다양한 유통채널 등을 해외에 전파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2013년 롯데제과가 카자흐스탄 제과업체 '라하트'를 인수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롯데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가 아스타나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아는 향후 아스타나 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해 카자흐스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

'살모넬라 균' 검출 메론맛우유 회수

빙그레(대표 박영준)는 메론맛 우유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김해공장에서 올해 3월 31일 만들어진 메론맛우유 4000박스(상자 당 32개)로 유통기한은 이달 11일까지다.

빙그레에 따르면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한 품질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해당 라인의 생산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매 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혜인기자 green@

페리카나, 뉴욕 1호점 열며 미국 진출

치킨 브랜드 페리카나(대표 양희권)가 뉴욕 퀸즈 플러싱 스트리트에 미국 1호점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뉴욕 매장은 기존 페리카나 외국 매장과 달리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펍'(PUB) 스타일로 접근함을 강조했다.

양념치킨부터 신제품 치즈뿌리오까지 30여 가지의 치킨 메뉴가 있고, 최근 화이트스톤과 리틀넥,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지역으로 배달도 가능하다. 페리카나는 미국 내 매장을 펍 매장과 치킨전문매장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페리카나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8개국에 진출해 3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혜인기자 green@

동원홈푸드, '가노커피'와 식자재 공급 협약

동원홈푸드(대표 신영수)가 8일 서초구 양재동 동원그룹 본사에서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가노커피코리아(대표 이장표)와 식자재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노커피코리아는 전세계 60여개 나라에 진출해 있는 말레이시아 '가노엑셀(Gano Excel)'의 한국 지사다. 이 달 중으로 정식 브랜드 론칭과 함께 전국에 50여 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동원홈푸드 식자재사업부 김성용 상무는 "동원홈푸드는 기존 카페 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소스 시럽류 개발과 제조에 있어 국내 최고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랜차이즈들과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경 헬스앤, 잔티젠 함유 건강기능식품

생활뷰티기업 애경(대표 고광현)의 헬스앤이 건강기능식품 '브이24 다이어트 프로그램 퓨어 잔티젠'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천연 다이어트 신소재 '잔티젠'이 100% 함유됐다. 잔티젠은 미역추출물과 석류씨오일 등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원료다. 미국특허를 취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국제적인 효능을 인정받았다. 개별인정형 원료란 동물실험과 인체실험을 통해 새롭게 기능성을 인정받는 원료를 말한다.

하루 한 알 섭취로 체지방·몸무게·허리둘레 및 내장지방 감소효과는 물론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시험결과 나타났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LG, '엘라스틴 프레시 헤어팩'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엘라스틴 프레시 헤어팩' 2종을 출시했다.

'엘라스틴 너리싱 바니 헤어팩'은 시드르나무에서 추출한 귀한 꿀 성분을 함유해 건조한 모발에 촉촉한 수분을 전해준다. 로열젤리 추출물은 모발 깊숙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줘 머릿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꿔준다.

'엘라스틴 리프레싱 민트 헤어팩'은 모두 말끔하기 두피 각질을 제거해주고, 멘톨 성분과 민트 추출물이 함유됐다. 2종은 전국 CJ올리브영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오롱FnC, 유통사업 진출

세계 최대 컨테이너 팝업 쇼핑몰 '커먼그라운드' 건대점 내일 오픈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대표 박동문)이 건대 상권에 복합 쇼핑몰을 열며 유통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은 8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커먼그라운드' 건대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일 세계 최대 컨테이너 팝업 쇼핑몰을 연다고 밝혔다.

커먼그라운드는 코오롱에서 시도하는 첫 유통 브랜드다. 2개 동, 전체 연면적 약 1600평의 컨테이너 팝업 쇼핑몰로 200개 특수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는 건축기법을 활용해 지었다. 소호 거리와 시장을 연상케하는 20대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사하는 공간을 표방한다. 영국 런던의 박스파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리스타트 등 해외 컨테이너 쇼핑몰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커먼그라운드 총괄 오원선 전무는 "컨테이너로 지어진 건축물은 전시공간·교육공간·문화공간·주거 등 다양하지만 종합적인 상업시설로는 국내 최초 시도"라고 강조했다.

커먼그라운드는 56개 패션 잡화 브랜드를 비롯해 16개 F&B(식음), 1개 문화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수익성 차원 보다는 '상생'을 염두에 둔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 전무는 "사업 취지가 단순 유통 사업을 떠나 지역과의 상생에서 출발했다"며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매출은 250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은 자사가 보유한 패션 브랜드는 입점시키지 않기로 했다. 뉴에라·샌스 등 대중적인 브랜드는 최소화하고 중·소 브랜드 위주로 유지했다. 식음료 역시 소녀방앗간, 도레도레 등 소규모 맛집들로 구성했다. 또 입점 브랜드에 보증금은 받지않고 월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수수료율 역시 백화점과 비교해 리테일 브랜드의 경우 평균 25%, 식음료는 10~15% 정도 낮다. 또 수수료 입금 날을 한 달에 두번으로 나누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외에 에바주니, mA 등과 같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브랜드도 유치했다.

회사 측은 건대점을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하고 향후 이 같은 팝업 쇼핑 형태로 2, 3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에 롯데백화점 등 쇼핑 시설이 있어 다소 부담이 될 듯 하다. 커먼그라운드 건대점과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스타시티몰이 있고 여기에는 롯데백화점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패션 식음료 브랜드가 들어서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한국식 만두' 미 시장 열풍

1분기 매출 360억 올해 목표 1300억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재현)의 글로벌 전략제품인 만두가 미국 식품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만두가 지난 1분기 매출 36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 240억원 대비 46% 성장한 수치다.

특히 CJ제일제당 미국 만두의 대표 제품인 '비비고 만두'는 1분기에만 지난 한해 매출의 40%에 달하는 22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식 만두'를 앞세워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식, 만두와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CJ 측은 설명했다.

미국 시장은 약 4700억원 규모. CJ제일제당은 2012년부터 맛과 편의성은 기본이고 '야채를 듬뿍 담은 건강한 만두'로 차별화시킨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미국 만두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2년 만에 연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CJ제일제당 미국 만두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공격적인 투자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총 280억원을 투자해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초부터 풀러턴 만두 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기존 만두공장인 캘리포니아 파라마운트 공장과 뉴욕 브루클린 공장의 생산물량까지 합쳐 연간 총 3만톤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비비고 만두'는 만두피가 두꺼운 중국식 만두와 달리 만두피가 얇고 채소가 많은 만두속을 강조하며 '건강식'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탄수화물이 섭취를 가능한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섭취를 늘리려는 미국인의 식생활 패턴과 잘 맞아 떨어졌다. 한입 크기의 미니 사이즈로 편의성도 극대화 했다.

'비비고 만두'의 대표 제품인 '미니 완탕'은 미국 내에서 팔리는 만두 제품 중 가장 작은 사이즈다. 튀김이나 구이, 완탕 수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비비고 만두'는 닭고기를 선호하는 현지 식성을 고려해 '치킨 만두'를 개발했다. 건강식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홀그레인(통곡물)'을 반영해 만두피에 통곡물을 듬뿍 넣은 군만두 제품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주력 제품인 '미니 완탕' 매출 극대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트코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신제품 '유기농 군만두'와 '찐만두'의 입점과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전년보다 30% 성장한 1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혜인기자 green@

도심서 1시간… 흐드러진 꽃내음에 취해보자

공항철도로 즐기는 유유자적 봄꽃여행

포근한 봄기운에 서울 도심에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산수유 등이 한꺼번에 피어나며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도심속 봄꽃 명소들은 찾아가기 쉬운 대신 많은 인파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여유로운 봄꽃 감상이 쉽지 않다. 이처럼 번잡한 꽃나들이가 싫다면 호젓한 섬으로 봄꽃 여행을 떠나자. 서울역~인천공항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 노선 주변에는 도심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섬들이 많아 봄꽃 나들이와 섬 여행을 동시에 즐길수 있다.

신도 구봉산 벚꽃 진달래길
삼색꽃길 트레킹 코스 압권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해 쉽게 갈 수 있는 신도는 인근 시도, 모도와 연도교로 이어져있다. 이들 세섬이 '삼형제섬'으로 불리는 이유다. 맏형격인 신도에는 해발 178m의 구봉산이 있는데 4월 중순을 전후해 벚꽃과 진달래, 개나리 등 봄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구봉산에는 정상으로 오르는 임도를 따라 7000여그루의 산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 화려한 벚꽃동산을 이룬다.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임도 주변으로 개나리, 진달래도 함께 피어 봄 트레킹의 묘미를 더해준다. 특히 정상길목와 구봉정에서 정상입구까지의 등산로 주변에는 진달래가 대규모 군락을 이뤄 장관을 이룬다.

구봉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볍게 도보 트레킹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구봉산 봄꽃 구경 후 반대편으로 하산해 다리로 연결된 시도, 모도를 함께 구경하는 것이 좋다.

<가는길> △운서역 → 221-1번 버스(매시 40분 출발) → 삼목선착장(도보10분) → 신도 → 등산로 입구 △선박운출: 신도출 매시 10분 출발(1시간 간격), 신도 출출 매시 30분 / 왕복기준 대인 4600원, 소인 2600원

장봉도 벚꽃길
도로 위 '꽃잎카페트' 환상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쉽게 갈수 있는 장봉도는 도로 주변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특히 옹암해변부터 국사봉 자락의 말문고개까지 2km에 이르는 도로 양쪽으로 아름드리 벚나무길이 이어져있어 만개시 화려한 벚꽃터널이 연출된다.

이곳 벚꽃길은 꽃잎이 바람에 떨어질 때 도로위에 하얀 눈이 내린 듯 더욱 환상적이다.

매년 4월 중순 이곳 벚꽃길에서 옹진군 북도면 주관으로 '장봉도 벚꽃맞이 가족건강 걷기대회'가 열려 벚꽃놀이도 하고 섬여행도 즐기는 일석삼조의 여행코스가 된다. 장봉도는 서쪽 해안을 일주하는 트레킹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윤옥골~가막머리 구간의 해안에는 협곡과 해식 동굴,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이어져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가는길> △운서역 → 221-1번 버스(매시 40분 출발) → 삼목선착장 → 장봉도 → 마을버스 이용 △선박운행: 장봉도행 매시 10분 출발(1시간 간격), 장봉도 출발 매시 정각 / 왕복기준 대인 5000원, 소인 4000원.

무의도·실미도 벚꽃
해변진입로 벚꽃터널 장관

공항철도 용유임시역에서 가까운 무의도는 하나개해변과 실미해변 진입로 주변에 벚나무가 많다.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좁은 도로 양쪽으로 화려하게 핀 벚꽃들이 사방이 벚꽃동산인양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하나개해변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 등 촬영세트장으로 유명하다. 실미도는 영화 '실미도'의 촬영장소이자 실제 실미도 사건이 주역들이 훈련받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실미해변을 찾을땐 해변에서 실미도를 잇는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 방문하면 더욱 재미있는 섬여행을 즐길수 있다.

<가는길> △주말·공휴일: 서해바다열차 용유임시역 → 도보 15분 → 잠진도 선착장 → 무의도 도착후 마을버스 이용. 평일에는 인천공항역에서 인천공항 3층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후 2-1, 222번 버스 이용후 잠진도 선착장 하차. △선박운행: 무의도행 매시 15, 45분 출발(30분 간격)/ 왕복기준 대인 3000원, 소인 2100원.

/채신화기자 csvan@metroseoul.co.kr

실미해변 인근 벚꽃길 /공항철도 제공

강강술래 "문화공연 부담없이 즐기세요"

공연·스파 이용권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스파 이용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전 매장 응모함에 명함을 넣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힐링스파 'Have9Zone(스파·사우나 찜질방)' 이용티켓(1인 2매)을 준다. 또 강강술래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겐 6월 말까지 스파 이용권 4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같은 기간 홈페이지(www.sullai.com)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엠보이트홀 지하1층 디온홀에서 공연되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도 증정한다.

강강술래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에는 마술 같은 샌드애니메이션, 하광드로잉, 페인트드로잉 등 드로잉쇼를 비롯해 열정적인 아크로바틱 댄스 서커스쇼, 아날로그 감성의 감동적인 아빠와 아이의 러브스토리 등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운틴듀' 마시고 '어벤저스' 한정판 아이템 받자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의 글로벌탄산음료 브랜드 마운틴듀가 국내에서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함께 5월 23일까지 '마운틴듀 어벤저스 온팩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제품 구매와 상관없이 어벤저스와 관련된 인증샷과 함께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매주 추첨을 통해 어벤저스 한정판 피규어(1명), 어벤저스 영화티켓(250명, 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다음주 중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대목동병원이 수탁해 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최경규 교수)는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인지건강 특화프로그램 '기억튼튼발전소'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기억튼튼 발전소'는 양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력 향상, 일상 생활 활동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지건강 특화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신월1동 주민자치센터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그리고 양천구치매지원센터의 3자 협력체계 구축으로 프로그램이 한층 알차게 구성됐다.

개별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치매예방 및 만성질환관리교육, 운동, 영양, 원예, 음악, 미술치료 등을 10주간 진행하고 사후 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뉴스테이 적극 참여해 달라"

유일호 장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포함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이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3개 건설단체장과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건설업계와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며 건설업계에도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호황, 브랜드 가치 저하, 불투명한 정책 연속성 등의 이유로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유 장관은 "앞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에서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비자금 비리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우려하며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 발주기관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건설업계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수주 누계금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정부는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과 경험을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 문제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일단 입찰 담합 처분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합 처분에 따른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차별 철폐와 7월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LTV·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LTV·DTI 연장의 필요성은 국토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수도권 무주택 14% "주택구매 의사 有"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무주택 전세가구 중 빚 없는 29만여 가구는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산연은 8일 발표한 '수도권 전세시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무주택 전세가구 주택구매 유효수요가 29만8000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무주택 전세가구 212만 가구에 견줘 14%에 달하는 수치다. 주산연은 ▲무주택 임차가구와 주택구매 의향률 ▲현 전세가율 수준에서 주택구매 고려 의사 가구 비율 ▲부채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수도권 전세수급 불일치를 우려하며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전세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세물량 유지와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수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보유의 전세주택 물량 감소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85~102㎡ 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규모 관련 규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전·월세 거래시장 규모는 2013년 91만5000만건, 2014년 97만8000 건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연립·단독주택은 소형규모에서 오르는 데 반해 아파트는 전 평형대에서 균등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85~102㎡ 규모의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모두발언하는 유일호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단체장과의 초청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 7월 입주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가 오는 7월 입주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일대일 재건축 방식으로 공급된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는 '하늘로부터 쏟는 라틴어 이름에 걸맞게 한강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한다. 최고 56층 200m 높이로, 남산(262m)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용면적 124㎡, 총 460가구 규모다.

단지는 기존 성냥갑 모양에서 탈피해 '한강에서 솟아오른 크리스탈'을 콘셉트로 꾸며졌다. 우선 외벽을 유리소재로 마감하고 LED조명을 사용해 독특한 외관을 연출했다. 또 각 동 17층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됐다.

커뮤니티시설은 보통 저층에나 지하에 들어가는데 반해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는 스카이브릿지가 있는 17층에 마련됐다.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선다. 1층 별동 커뮤니티센터에는 수영장, 사우나, 키즈룸 등이 배치된다.

현재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한강 조망권이 가장 좋은 101동 1호 라인 고층의 경우 23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현대건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2차' 분양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 감계지구 4블록 15로트에 공급하는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2차'의 모델하우스를 10일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으로 전용면적 ▲59㎡ 147가구 ▲70㎡ 215가구 ▲84㎡ 385가구(사진) ▲101㎡ 89가구 등 전체 836가구 규모다. 앞서 공급된 1·3·4차와 함께 총 4213가구의 힐스테이트 타운을 이루게 된다.

감계지구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어 창원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남해고속도로와 KTX창원역이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천주산, 작대산, 조롱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한 게 특징이다.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는 창원 최초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안전하게 아이가 함께 자라는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셉테드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 이념 기법이다.

공원 같은 아파트를 구현하고자 42%의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단지 내 산책로를 비롯해 유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한다. 또 지상에는 주차장을 없애 쾌적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외관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컬러리스트이자 디자이너인 프랑스의 장 필립 랑클로와 공동 개발한 '힐스테이트 아트 컬러(Hillstate Art Color) 2'가 디자인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에는 평면선택제를 제공, 수요자들이 보다 넓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자녀들에게 색채를 통해 학습과 감성에 도움을 주는 창의력벽지를 사용하고, 일부 안전을 고려한 둥근 모서리 가구를 배치한다.

힐스테이트만의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대 내 에너지 사용 정보 확인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스마트폰 앱도 제공한다.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계약은 28~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4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10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성장으로 달려온 시간, 지금 필요한 건 성숙"

'장수상회'로 돌아온 강제규 감독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영화가 급성장하던 시기, 충무로의 중심에는 강제규(52) 감독이 있었다. 연출 데뷔작 '은행나무 침대'(1996)를 시작으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쉬리'(1999), 그리고 1000만 영화의 흥행 신기록을 세운 '태극기 휘날리며'(2003)까지 그의 영화는 한국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영화산업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그러다 거듭됐던 성공은 '마이웨이'(2011)에서 한풀 꺾이고 말았다. 28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국내에서 214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치며 강 감독에게 처음으로 흥행 참패라는 불명예를 안겼다.

그로부터 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강 감독은 '마이웨이'의 흥행 실패에 대한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잃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얻은 것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화라는 본질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들여다보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시나리오 작업과 중국과의 합작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쉼 없이 시간을 보내온 강 감독은 단편영화 '민우씨 오는 날'로 연출을 재개했다. "영화인으로서의 행복이 아닌 개인 강제규로서의 행복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의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민우씨 오는 날'은 그때마침 단편 연출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민우씨 오는 날'에 이어 선보이는 '장수상회'는 강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소박한 규모의 작품이다. 순제작비 37억원에 서울 변두리 마을을 배경으로 소시민의 삶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강 감독은 '장수상회'에 대해 "의도적인 변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의 한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모가 달라졌을 뿐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태극기 휘날리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영화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동네를 배경으로 70대 노인에게 찾아온 황혼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의 소박한 감성을 잘 그려내기 위해 강 감독은 서울 수유동과 우이동 일대를 주요 촬영장소로 선택했다. "조금은 비현실적이더라도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는 동화적인 느낌, 따뜻한 정서를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한곳에 빌집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 수유동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실제로도 마을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인간의 온기가 남아 있는 동네가 있구나 싶었어요."

'장수상회'가 강 감독의 전작과 다르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화 곳곳에 웃음과 여유가 녹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극중에 등장하는 중국집 이름이 '태극기 휘날리며'를 패러디한 '철가방 휘날리며'인 것은 강 감독 스스로 전작들의 무게감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도로 다가오기도 한다. 실제로는 미술팀 스태프가 직접 본 중국집 이름이 모티브가 됐다. 강 감독은 "특별한 의도는 없는 설정"이라며 "관객도 큰 부담 없이 재미를 느끼길 바랐다"고 밝혔다.

따뜻하고 착한 분위기의 영화지만 다소 무겁게 다가오는 주제도 있다. 바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듯한 영화의 메시지는 관객 입장에 따라서는 의문이 생길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 감독은 "재개발은 서브플롯인 만큼 큰 의미를 갖고 두지 않고 노년의 사랑을 서포팅하는 기능 설정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마이웨이' 흥행실패 자신 돌아보는 계기

소박한 규모作 복귀… 자연스러운 진화과정

감독들 개성·역량이 韓 영화 윤택하게 해

"처음에는 재개발이라는 소재가 클리셰 같아 빼는 것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재개발의 의미가 과거의 추억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사는 성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뺄 수 없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희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설정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강 감독은 "그동안은 한국영화의 성장기였기에 스스로 기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외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금 강 감독이 생각하는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지금은 한국영화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독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역량이 한국영화를 더 윤택하게 만들 것 같고요. 다음 작품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수상회'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제공 | 디자인/[illegible]

star bag

11년 만에 새 앨범 발표

힙합듀오 지누션이 11년 만에 오는 15일 새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사진에서 지누션은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다. 1997년 가요계로 데뷔한 후 '말해줘' '타' 'A-Yo' '전화번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당시 인기를 재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냄보소' 두 번째 OST 참여

걸그룹 여자친구의 유주가 데뷔 후 처음 OST를 불렀다. 유주는 래퍼 로꼬와 SBS 수목극 '냄새를 보는 소녀' 두 번째 OST '우연히 봄'에 참여했다. 8일 공개된 '우연히 봄'은 사랑이 시작되는 느낌을 봄에 비유했다. 피아노 선율 위 유주의 목소리와 로꼬의 감각적인 래핑이 잘 어우러진 팝 스타일 곡이다.

내달 3일까지 '전통시장' 공연

그룹 M.I.B 강남이 가수 태진아와 오는 19일 성남 모란시장, 26일 대전 대광시장, 다음달 3일 청주 육거리 시장을 돌며 공연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듀엣곡 '전통시장' 가사에 등장하는 전국 재래시장을 차례로 간다. 두 사람은 내달 중순부터 방송도 출연한다.

첫 방송 출연, 여심 흔들

뮤지컬 배우 마이클리가 8일 SBS MTV '더 스테이지 빅플레저'에 등장했다. 첫 방송 출연이다. 마이클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겟세마네', '레미제라블'의 '브링 힘 홈', '위키드'의 '포굿' 등을 불렀고 브루노 마스의 '저스트 더 웨이 유 아'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전보여 여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차형락 '2반 김수정' (digital inkjet pigment, 2014) 염조용(2015.4.5, 서울 광화문 광장) 권우석(2014.4.17 단원고등학교 희망의 불빛) /류가헌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페이스북

벌써 1년… 씻기지 않는 아픔 담아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시·공연 등 추모 열기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가 다가오고 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세월호의 아픔은 아직 진행형이다.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가 9명에 이르고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세월호 선체 인양은 아직 멀기만 하다. 사고 1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류가헌에서는 사진가 15인이 세월호의 아픔을 잊는 망각에 대한 주제로 '반 방' 전시회를 열고 있다. 김란호·노순택·정영구 등 사진가들이 '416 기억저장소'와 함께 찍은 작품들이다.

2014년 4월 15일 이후 주인이 없어진 학생 54명의 방은 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물들은 예전과 그대로 존재함을 보여주며 부재를 통해 느껴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전시는 19일까지다. 안산 416 기억 전시관에 펼쳐진 '아이들의 방'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된다.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시에서는 공연이 열린다. 11일 오후 1시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진실을 인양하라' 304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1주기 콘서트 '지난봄, 너의 눈물 이' 화랑유원지 소 공연장에서 열린다. 가수 강산에, 한영애, 노란 물결 연합합창단이 노래한다.

16일 당일에는 오후 2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4·16 합동분향식'이 있고,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옆 해양공원에서는 '세월호 추모제'가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서울 광화문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7~11시에 '세월호 범국민 추모제'가 있다.

이 밖에도 고양시에서는 11일 오후 7시 어울림극장에서 고양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추모음악회 '노랗게 피어나라'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사가 있다.

전국에서 열리는 세월호 추모행사는 '4·16 전국 지도(www.candlelights.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기자 yuri@metroseoul.co.kr

발칙한 중년女 이야기

박해미·김선경 뮤지컬 '쿠거' 열연

'쿠거'로 변신한 박해미·김선경의 모습이 오는 10일 최초 공개된다.

쿠거는 먹이를 찾으며 어슬렁거리는 쿠거(고양잇과 동물)의 습성을 빗대 밤늦게까지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중년 여성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뮤지컬 '쿠거'는 중년 여자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린 여자들을 위한 이야기다. 작품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세 여자들이 쿠거 커뮤니티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박해미·김선경은 릴리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어린 시절 상처가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지닌 매력적인 여성이다. 최혜주·길혜연은 단호한 겉모습과 달리 삶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숨기고 있는 여성 클레리티로 분했다. 유머러스한 생기 있는 여성이자 쿠거 바(Bar) 주인 메리마리 역에는 김희원이 열연한다.

뮤지컬 '쿠거'는 개막 전부터 한국판 '섹스 앤 더 시티'로 불렸다. 특히 2012년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공연을 시작으로 2년 동안 300회 이상 장기 공연을 전회 매진시킨 바 있다. 한국 초연을 앞두고 여성 관객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10일~7월 26일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공연된다.

/전효순기자 soon@

'자유인' 최민수가 노래하는 세상

'말하는 개' 10분만에 만들어

배우 최민수(53)가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노래한다.

지난해 자신이 만든 노래들을 담은 정규앨범을 발표한 바 있는 최민수는 배우가 아닌 가수로서 8일 '말하는 개' 쇼케이스를 열었다.

최민수는 '말하는 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제작비는 자장면 1그릇, 볶음밥 2그릇정도 들었다"고 밝혔다.

뮤지션 최민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음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세상을 음악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대중가요도 물론 좋지만 매 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운율과 선율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장훈은 "최민수 형은 배우인데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편견을 가졌다"며 "하지만 음악에 대한 형의 태도와 노래를 들어보니 뮤지션이란 걸 알게 됐다. 이제 뮤지션 더 뮤지션으로서 형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말하는 개'에 대해 최민수는 "사실 김장훈에게 주려고 쓴 곡이다. 아무 생각 없이 10분 만에 만들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면 피곤하니까 나만의 해학적인 방법으로 살아보자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최민수가 8일 신곡 '말하는 개' 발표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손진영기자 son@

/김지민기자 kimjk@

호화 캐스팅 '부산행' 탑승자 확정

공유·정유미·안소희 등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사이비' 등으로 주목 받은 연상호 감독의 첫 극영화 '부산행'에 공유, 마동석, 정유미, 최우식, 안소희, 김의성, 김수안 등 주요 캐스팅을 확정했다.

'부산행'은 미상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재난 상황 속에서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행 KTX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다.

공유는 펀드 매니저이자 홀로 딸을 키우는 아빠 석우 역을 맡았다. 마동석과 정유미는 뜻하지 않은 재난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부 상화와 성경 역으로 함께 한다. 김의성은 석우와 대치하는 KTX 탑승객 용석을 연기한다.

이기에 최우식은 기차의 탑승객 중 한 명인 야구부원 영국 역으로 젊은 기운을 더한다. 안소희는 야구부 서포터즈 진희 역으로 최우식과 호흡을 맞춘다. 끝으로 충무로 대표 아역배우로 자리매김한 김수안은 공유의 딸 수안 역으로 이들과 함께 간다.

연상호 감독은 "참여하기로 해준 모든 배우들이 작품에 보여주는 관심과 열의 덕분에 풍부한 결을 가진 작품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행'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연작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연상호 감독은 "기나긴 프로젝트에 동참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크랭크인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부산행'은 오는 4월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김기태 KIA 감독 "이제 수염 잘라야겠군"

연승행진 스톱… 김병현·서재응·곽정철 등 재활군 복귀 초읽기

연승 기간 수염을 기르던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이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KIA는 지난달 28일 LG 트윈스와의 개막전 승리 이후 줄곧 6연승을 달렸다. 이 기간 김 감독은 수염을 자르지 않았다. 연승 기간 수염을 자르지 않는 것은 김 감독의 징크스다.

하지만 KIA는 7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홈경기에서 3-5로 져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6승1패로 선두자리를 놓치지는 않았다.

연승이 끊긴 건 아쉽지만 김 감독은 재활 막바지에 이른 예비 전력이 자라고 있어 든든하다.

최근 KIA 퓨처스(2군)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병현 서재응 곽정철 한승혁 등 1군 무대에 이름을 올렸던 투수들이 동시에 실전 테스트를 치렀다.

지난 2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발된 김병현은 5일 함평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9피안타 9실점 5자책)을 소화했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실전 경기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부풀렸다.

서재응은 4일 같은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고, 한승혁은 7일 상동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 2자책을 기록했다.

이들은 1군 투수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승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위를 회복했다.

곽정철과 박성호 등 불펜 자원들도 어름에 면 병끝로 퓨처스리그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내외를 소화하며 1군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지난 3년(2012~2014년) KIA는 부상 선수가 나오면 그 공백이 더 나라하게 느러났다. 하지만 올해는 스프링캠프 때부터 팀 전체가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예비 자원의 수와 기량이 확 늘었다.

시즌 초 KIA가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는 우천 취소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4·5선발이 등판 없이 양현종 필립 험버·조쉬 스틴슨 등 1~3선발을 두 차례씩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인 문경찬이 깜짝 선발 등판해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쳤지만 이제 확실한 4·5선발진을 구축해야 한다.

부상 선수들의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KIA의 투수진에 변화를 줄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illegible] kim@metroseoul.co.kr

이택근 얼굴에 볼 맞고도 홈런포 투혼

넥센 히어로즈의 이택근(35)이 얼굴에 타구를 맞은 뒤 홈런포를 날리는 투혼을 발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택근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에서 2번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2회말 두산 오재원이 걷어올린 타구가 좌중간을 향하자 중견수 이택근은 공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어 몸을 날렸다.

하지만 타구는 이택근의 글러브를 피해 마운드에 떨어지며 다시 튀어올라 이택근의 얼굴을 강타했다. 오재원은 2루까지 출루했다. 이택근은 고통을 참고 타구를 3루로 던진 뒤 땅에 주저앉았다. 트레이너가 뛰어 나와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이후 이택근은 팀이 3-0으로 앞서던 5회초 타석에서 유희관을

이택근이 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2회말 수비도중 공에 얼굴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배 파이팅에 넥센 선수들 창단 최다 27안타 폭발

상대로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넥센은 이택근의 투혼을 앞세워 팀 창단 후 한 경기 최다인 27안타로 두산을 17-4로 대파했다.

경기 후 이택근은 "공에 얼굴을 맞는 순간 별이 보였다. 지금도 왼쪽 어금니가 욱신거린다"며 "지난주 경기 결과가 안 좋아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돼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한 것 같아 고참으로서 기분이 좋다"고 선배다운 파이팅을 보였다.

/[illegible]

추신수, 시원한 2루타로 시즌 첫 안타

텍사스, 오클랜드 꺾고 첫승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2루타를 터뜨리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개막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추신수는 두 번째 경기에서 장타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0-0인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오클랜드 선발 제시 한의 5구째 바깥쪽 투심패스트볼을 걷어올려 좌익수 키를 훌쩍 넘어가는 2루타를 만들었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4회에는 유격수 땅볼에 그쳤고, 5회에도 1루 땅볼로 물러났다. 8회 4번째 타석에서는 2루 베이스 방면으로 깊숙한 땅볼 타구를 쳤으나 상대 호수비에 아웃됐다. 3-1로 앞선 8회말 수비에서 제이크 스몰린스키로 교체됐다.

텍사스는 오클랜드를 3-1로 제압하고 시즌 첫 승리를 올렸다. 선발투수 콜비 루이스는 6이닝 동안 삼진 4개를 곁들이며 3안타 1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illegible]

J리그 김민혁, 4경기 출장정지

"상대 얼굴 밟는 것은 악질적 행위"

일본 J리그 경기 도중 과격한 반칙을 저지른 김민혁(사간 도스)이 4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 스포츠호치는 8일 J리그 규율위원회가 김민혁의 반칙이 '아주 악질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민혁은 지난 3일 가시마 앤틀러스와의 경기에서 몸싸움 도중 쓰러진 상대 미드필더 가나자키 무의 얼굴을 왼발로 밟았다.

당시 몸싸움 장면을 목격한 심판은 김민혁에게 옐로카드를 줬지만, J리그 측은 가나자키의 얼굴을 밟은 행위에 대해선 심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J리그는 반칙 장면을 담은 영상을 분석한 뒤 심판과 김민혁 본인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민혁의 소속팀 사간 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나자키와 가시마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보낸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단 전체가 하나가 돼 엄격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

해트트릭 김두현 K리그 4라운드 MVP

K리그 무대에서 생애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김두현(33·성남)이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4라운드를 가장 빛낸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정규리그 4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김두현을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두현은 대전을 상대로 3골-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1 승리를 지휘하며 팀의 시즌 첫 승리를 이끌었다.

4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김신욱(울산)과 에두(전북)가 선정됐고, 미드필더 부문에는 이종호(전남) 김은선(수원) 김은선(성남) 에벨톤(서울)이 뽑혔다.

수비수 부문은 이명재(울산) 조성환(전북) 민상기(수원) 차두리(서울)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골키퍼는 권순태(전북)가 선정됐다.

/[illegible]

警,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메트로 신문' 탈취한 신세계 직원
경찰 "신분 분명·단순폭행 사건" 처리

경찰이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용의자를 피해자와 일반시민이 붙잡아 인계했는데, 용의자의 신원이 분명하고 단순폭행사건이라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측이 반발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최아무개씨 등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도우미 최씨와 인근에 있던 일반시민 고아무개(75)씨가 실랑이 끝에 최씨는 붙잡았으나, 나머지 한명은 신문 뭉치를 든채 택시를 타고 도망쳐버렸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신세계 이마트가 현재 진행중인 직원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이 3년여 전부터 그룹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도우미 최씨는 사건 와중에 112에 신고를 했고 잠시후 남대문경찰서 소속 순찰차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용의자 최씨는 처음에는 모 신문사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이 신세계백화점그룹 (정용진 부회장) 계열사인 이마트 홍보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신세계 직원들이 신문을 강제로 뺏고 배포대에 있던 신문을 무더기로 탈취해 도주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34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특수강도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331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 직원들의 행위는 이외에 메트로신문사와 배포도우미에 대한 업무방해(5년이하의 징역)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세계 직원 최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직후 단순폭행으로 경미한 쌍방 피해사건 이라며 관련자들의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다.

배포도우미 최씨는 "경찰에게 신세계 직원들이 강제로 신문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신세계 직원의 단추가 뜯어진 것 등을 들어 쌍방피해 사건이라며 시민 고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신세계 직원을 그냥 보내버렸다"고 말했다.

오정석 남대문파출소 소장은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신세계 직원 최씨의) 옷이 찢어져 있었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파출소 직원들이) 거기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메트로신문 박아무개 판매부장은 "신세계 직원들의 신문 탈취와 도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옷은 단추가 떨어지고 바지허리가 풀린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현행범을 검거하는 과정에 벌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메트로신문이 합의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본지는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곽현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질범 꼼짝마' 충북지방경찰청이 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한 빌라에서 인질대치 상황을 가정한 범죄대응모의 훈련이 긴장감 속에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 쟁점은?

'생계형은 막아선 안돼' VS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돼'

시행되면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9일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앞에서 집창촌 업주와 종사자들이 집회를 갖고 집창촌 폭력에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이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 처벌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집창촌 여성들은 처벌하지 말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은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있어 양측의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헌이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다. 2000년 재직 당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한 전력이 있는 그가 되레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범법자로 몰면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매매가 개인 간의 성행위인지 여부를 놓고도 법리해석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때도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문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성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에선 자발적이라도 인간의 성을 금전을 매개로 거래하는 것이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와 관련된 간통죄와 달리 성매매 처벌은 금전거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곤란해서 빵을 훔쳐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명숙(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개인의 자유나 직업 선택권 등 개인적 측면에서, 합헌 측은 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점이 공개 변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간통제 위헌 판결 이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간통죄 폐지도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라며 "(성매매특별법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미인기자 actor@

'비리 공무원' 정부포상서 영구배제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도 처벌 징계 수위에 따라 2~5년이 지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리 공무원은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된다는 점에 비춰 정부포상을 통한 감경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포상 심사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포상 대상 분야의 전체적인 성과와 기존 관례에 따라 포상의 규모와 훈격이 정해졌다. 때문에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인사에게도 상훈이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훈장 나눠먹기', '훈장 잔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행자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따져 전체적인 포상 규모와 훈격을 부여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적으면 예년보다 포상의 규모를 줄이고 격이 낮아져 자격 미달 후보가 훈장을 챙기는 사례가 줄어든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벌여 훈격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이 강화되고 민간위원의 비율도 현재의 20~50%로 상승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1948년 이후 존 포장 기록 68만여건을 7일부터 인터넷 정부상훈포털에 공개해 누구나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1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과거 훈포장 기록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이행해 정부포상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속기자 hong@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